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임실군, 5개분야 청소년 정책과제 및 글로벌 K-청소년 비전 제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임실 인적자원 육성 등

임실군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임실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2024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사회환경조사를 바탕으로 5분야 14개의 청소년 정책과제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임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기본 운영 방향과 임실군 청소년의 사회서비스를 분석하여 그들이 '미래 원하는 것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했다.

첫째 문화·체육·여가활동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둘째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체

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제시됐다.

이어 셋째 안전한 학교생활과 비행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환경 차단과 보호 확대와 넷째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강화, 다섯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청소년정책 총괄 강화 등의 방향이다.

매년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가 참여하는 정책제안대회,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유해환경영양소 단속,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위기 및 학교 부적응, 정서불안 청

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전문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에서는 전년도 수련활동 인증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수련원의 예약률은 이미 100%를 기록하여 전국 으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은 4차산업 관련 VR 스포츠실 운영과 디지털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음악, 디지털드라마, 디지털교실 등 다양한 특화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어울림마당, 참여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놀이체합의 장으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청소년 사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건강한 자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전주대학교 K-Food 산업연구소는 남원시의 문화·예술과 원푸드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이 있는 남원 미식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다.

## 남원 미식관광 코스 개발 나서

### 남원농기센터-전주대 K-Food 산업연구소, 관광지 연계 경쟁력 강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와 전주대학교 K-Food 산업연구소(연구 소장 김수인)는 남원시의 문화·예술과 원푸드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이 있는 남원 미식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다.

남원시와 전주대학교는 지난해부터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남원형 One-Food 지역 생태계 활성화 과제 추진' 중이며, 일환으로 남원시의 문화 가치를 지닌 관광자원과 미식 상품을 융합한 미식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 미식관광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남원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즐겨 찾는 맛집, 메뉴, 카페 등과 만족도 조사를 실행, 이를 기반으로 미식 관광에 관심 있는 전문가

와 일반인을 모집하여 남원시 대표 관광지, 맛집, 카페 등으로 구성된 캠퍼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점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 디지털 메뉴의 개발과 더불어 대표 음식과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미식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남원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전주대학교 K-Food 산업연구소와 함께 남원시 미식관광 코스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 남원 관광객의 지역 유입 효과를 이끌고 장기 체류형 관광객 및 유입되는 시민들의 건강한 미식산업 제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 28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달 28일까지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7명 이내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세금 체납자, 최근 5년간 유사 창업 지원금 수령자,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 사업자등록 말소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지원에 관심있는 청년은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이번달 28일까지 군 청주정책과 청년정책팀(063-650-1587)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자들은 상반기 중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모자보건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해 저출생 대응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남임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당초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7회까지 4회 확대한다. 또한 임신,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도 확대 지원된다.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임신중독 등 19대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청, 발달장애에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한다. 특히 영아기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100만원을 증액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저저귀-조제분유도 지원 단가를 월 1만원씩 상향해 저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 조리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다동이 가정은 기존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출생축하금을 비롯하여 난임진단검사, 한의약적 난임치료,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자



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임신 전의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주거복지사업 추진 '호평' ... 청년주거복지 연장

남원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되며 불황에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을 조기 마감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이며, 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와 만19~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남원시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와 만 18~39세의 청

년 무주택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특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3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큰 호응을 얻어 추가로 2차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복지포(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위 사업들과 관련해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서 우수등급 받아

순창군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20%에게 수여하는 나등급을 받으며, 민원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 평가 대비 1등급이 상승되어 순창군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보았다는 평가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분야 20개지표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가~마 5개등급으로 나뉜다.

평가항목은 민원제도개선 계획수립, 기관장의 대·내외 활동, 민원담당자 보호조치,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단체, 만족도 등으로 나뉘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순창군, 부안군, 완주군이 '나' 등급을 받았다. 순창군은 민원서비스 평가를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민원근무자 휴대용 보호장비(동영상캠) 구입, 민원인용 복합기 구입 설치 등을 시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거주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